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박 선 응[†]

고려대학교

박 예 린

티프츠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불확실한 정체성이 높은 물질주의를 야기하여 낮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1에서 참여자들은 정체성 전념, 심리적 안녕감,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척도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불확실한 정체성(즉, 낮은 정체성 전념)은 높은 물질주의 및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고,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물질주의에 의해 매개되었다. 연구 2에서는 정체성과 물질주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체성의 (불)확실성 정도를 조작하기 위해 확실성 조건에 배정받은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느꼈던 경험을 적도록 요청하였고, 불확실성 조건에 배정받은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적도록 요청하였다. 글을 쓴 직후에 참여자들은 상태물질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확실성 조건에 있었던 참여자들은 불확실성 조건에 있었던 참여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물질주의를 보였다. 이 결과는 정체성의 확실성 정도가 물질주의 수준에 인과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높은 물질주의는 큰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정체성이 물질주의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정체성, 물질주의,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감

* 본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S1A5A2A03068974).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44%가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응답하였다(경향신문, 2013, 1, 7). 돈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고등학생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암시한다.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렇듯 한국사회에 퍼져 있는 물질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무엇이 물질주의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정체성을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 물질주의가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질주의의 정의와 측정 방법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또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물질주의(materialism)란 이렇게 단순히 삶의 수단으로서 물질을 얼마나 원하는지가 아니라, 물질의 소유 그 자체를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물질주의 연구 초기에 물질주의는 성격의 한 측면, 구체적으로 많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 자신의 소유물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인색함,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었다(Belk, 1984).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더 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오늘날 물질주의는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치판단의 준거가 되는 삶의 목표 혹은 가치로서 개념화되고 있다(Kasser, 2016).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는 두 가지이다. 그중 열망척도(Aspiration Index; Kasser & Ryan, 1996; Grouzet et

al., 2005)는 여러 가지 가치 혹은 삶의 목표를 제시한 후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제시되는 가치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의 경우 한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한 가치를 다른 가치들에 비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중요하고, 실제로 가치 연구의 초창기부터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Rokeach, 1973). 이에 따라 열망 척도를 이용하여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적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점수에서 전체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총합 점수를 빼거나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Han, Kim, & Park, 2018; Kasser & Ryan, 1993, 1996; Schwartz, 2012).

열망 척도와 함께 물질주의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척도는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한 물질적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를 성공의 지표로 여기는 '성공판단(possession-defined success)', 물질을 획득하는 것 자체를 중요한 삶의 목표로 여기는 '소유중심(acquisition centrality)',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만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행복추구(ac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 가치 척도는 원래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Richins(2004)가 요인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3문항을 제외한 후 3문항, 6문항, 9문항, 15문항으로 구성된 네 가지 버전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하위 척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예, 김가영, 임남연, 서은국, 2016), 총점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김지선, 설경옥, 2018; 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2017). 국내에서는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번역 및 타당화하였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물질주의, 즉 상태물질주의(state materialism)가 측정되기도 하는데

보통 특정 실험적 조작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상태물질주의는 물질적 가치 척도(Richins, 2004; Richins & Dawson, 1992) 문항 앞에 “지금(right now)”이라는 단어 등을 넣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태물질주의를 측정한 연구로는 Chang과 Arkin(2002)의 연구와 Li, Lu, Xia와 Guo(2018)의 연구 등이 있다.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한국인들의 물질주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은 편이다. 물질적 부의 중요성에 대한 한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 한국과 문화가 가장 비슷하다고 말해지는 일본, 일인당 GDP가 1,000달러에 불과한 짐바브웨 사람들에 비해서도 물질적 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물질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적 가치 척도(Richins & Dawson, 1992)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뿐만 아니라(Flynn, Goldsmith, & Kim, 2013), 중국과 인도 사람에 비해서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Cho, Jin, & Watchravesringkan, 2016).

문제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이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총 151개의 논문, 258개의 서로 다른 표본을 포함한 메타분석에서 물질주의는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12개의 지표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예컨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Richins & Dawson, 1992; Ryan & Dziurawiec, 2001), 불안감 및 신경증(Watson, 2014, 2015)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긍정적 정서는 덜 경험하면서 부정적 정서는 더 자주 경험하였다(Christopher & Schlenker, 2004).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자기개념은 상대적으로 불확실하고 자존감(Kasser & Kasser, 2001; Noguti &

Bokeyar, 2014), 자기실현 및 활력 수준은 낮았다(Kasser & Ryan, 1993, 1996; Kasser & Ahuvia, 2002). 나아가 한 종단연구에서(Kasser et al., 2014), 물질주의를 낮추는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10개월 후의 자존감이 높아져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인과성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최근 한 연구에서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월소득) 혹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지각된 자원이용가능성)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신희성 등, 2018). 그 결과 경제적 수준은 정신건강의 지표들과 정적 상관을, 물질주의는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많은 물질의 소유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물질주의가 정신건강과 부적 관계에 있고 이 부적 관계는 실제로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는 이유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 역시 다른 유기체들과 마찬가지로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사과나무가 잘 성장해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 영양분과 같은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 역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구체적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물질이라는 외적인 가치의 추구는 이러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메타분석에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부적 관계는 기본적 욕구 충족의 수준에 의해 매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et al., 2014).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 부적 관계가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어떤 사람들에게서 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나는지, 즉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한다(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첫 번째 요인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광고, 영화, 드라마 등의 미디어를 통해 '돈이 곧 성공'이라는 메시지에 노출되는데, 이를 모방학습(Bandura, 1971)하는 과정에서 물질주의적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Kasser, Cohn, Kanner, & Ryan, 2007). 특히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모도 출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모델과의 상향적 사회비교를 통해 비싸고 좋은 물질을 갖지 못한 자신들은 인생의 실패자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Richins, 1995).

본 연구에서 더 중요하게 다룰 두 번째 선행 요인은 사람들이 자기 혹은 세상에 대해 느끼는 불안전감(sense of insecurity)이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거나 예측가능하지 않은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전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수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Kasser et al., 2004). 불안전감이 높은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자신이 스스로 찾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의 획득을 삶의 목표로 추구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물질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물체의 안정성(safety of objects)"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Rindfleisch, Burroughs, & Wong, 2009, p. 1).

많은 경험적 연구가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으로 불안전감을 제안하는 관점을 지지하였다. 우선 여러 논문에서 자존감과 물질주의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이 결과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

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주의를 보임을 의미한다(Chaplin & John, 2007; de Rezende Pinto, Mota, Leite, & Alves, 2017; Kasser & Kasser, 2001).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기개념 확실성도 물질주의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Noguti & Bokeyar, 2014).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물질주의는 자존감과 부적인 관계, 불안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다(유지혜, 설경옥, 2018). 박진영, 최혜원과 서은국(2012)는 상관 및 실험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높은 불신이 물질주의로 이어짐을 밝혔다.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따뜻하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역시 물질주의 수준이 높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따뜻함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길러진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주의 성향을 보였다(김유연, 박성연, 2001; 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Richins & Chaplin, 2015). 초기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때문에 한 부모로부터 자란 성인들의 물질주의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Rindfleisch, Burroughs, & Denton, 1997).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험과(Cohen & Cohen, 1996; Kasser et al., 1995) 가정 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던 경험(Weaver, Moschis, & Davis, 2011)도 물질주의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불안전감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Chang과 Arkin(2002)이다. 이 연구에서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으로 다루진 변인은 무규범 상태(anomie)와 자기의심(self-doubt)이었다. 무규범 상태란 한 집단 내에 합의된 규범이 없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McClosky & Schaar, 1965), 자기의심은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리킨다(Oleson, Poehlmann, Yost, Lynch, & Arkin, 2000). 설문을 통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

1의 결과, 물질주의는 두 변인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 2에서 참여자들은 기질적 자기의심을 측정하는 척도에 답변한 후 자기의심과 관련된 단어(자기의심 조건)나 자기의심과 관련 없는 단어(비교조건)를 암기하였다. 이후 물질주의 척도(Richins & Dawson, 1992)를 수정하여 만든 상태물질주의 척도에 답변하였다. 그 결과, 평소 자기의심이 많았던 참여자들 중 실험적 조작을 통해 자기의심이 점화된 참여자의 경우 상태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 3에서 참여자들은 무규범 상태에 대한 척도에 자기보고식으로 답변한 후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없어 가치 혼란을 겪었던 상황(무규범 조건)이나 명확한 사회적 가치를 경험했던 상황(비교조건)에 대한 글을 쓴 후 상태물질주의 척도에 답변하였다. 연구 2와 마찬가지로 평소 사회적 가치 혼란을 많이 경험하고 그에 대해 글을 쓴 참여자들에게서 상태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을 살펴본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다(Ger & Belk, 1996). 12개 국가의 물질주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교적 근래에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이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가치 기준의 혼돈이 있고 이러한 혼돈이 물질주의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이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가치 기준의 부재가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이라는 해석은 개인 수준에서 언급되는 물질주의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으로서의 불확실한 정체성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여러 연구에서 다뤘던 불안전감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정체성¹⁾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즉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일컫는다(Berzonsky, 2003; Levin, 2003; Waterman, 1984). 정체성이 확실하게 형성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가치판단에 대한 내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가치혼란을 덜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유능성 또한 높을 것이다. 또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개념은 대체로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외적인 가치판단 기준에 상대적으로 덜 의지하고, 그 결과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누릴 수 있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의 연구주제로 부각시킨 것은 Erikson(1950)이지만,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Marcia(1966)이다. Marcia(1966)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탐색(exploration)과 전념(commitment)을 구분하였다. 탐색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살피는 과정을, 전념이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특정한 답을 내린 상태를 말한다. 이 두 변인의 조합을 통해 네 가지의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가 가

1) 정체성은 크게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과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이란 성별이나 인종 등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정체성으로 관찰자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개인의 영역을 가리킨다. 반면, 개인적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로 개인적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능하다.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는 탐색도 전념도 없는 상태, 정체성 폐쇄(foreclosure)는 탐색은 없으나 전념은 있는 상태, 정체성 유예(moratorium)는 탐색은 진행되고 있으나 전념이 없는 상태, 정체성 획득(identity achievement)은 탐색 후 전념이 이루어진 상태를 일컫는다.

비록 정체성 지위 이론이 정체성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Marcia(1966)의 이론적 모델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지 못하였다. 여러 종단연구 결과 정체성 발달이 Marcia가 제시했던 대로 혼미 → 폐쇄 → 유예 → 획득의 순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유예가 폐쇄보다 이론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폐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았다(Meeus, Iedema, Helsen, & Vollebergh, 1999).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체성 지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이다. 정체성 지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개관하며 Meeus 등(1999, p. 429)은 정체성 폐쇄와 획득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인다(show an equally high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고 주장하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체성 폐쇄와 획득 모두 정체성 전념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 즉 가치판단에 대한 확고한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정체성 전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전념을 통해 확실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물질과 같은 외적 기준에 의지하게 된다. 실제로 정체성 전념을 탐색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차원으로 측정된 연구에 따르면 정체성 전념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존감, 자기개념 확실성과는 정적으로, 불안 및 우울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Balistreri, Busch-Rossnagel, & Geisinger, 1995; Crocetti, Rubini, & Meeus, 2008; Luyckx, Goossens, Soenens, & Beyers, 2006; Vleioras & Bosma, 2005).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차원으로 측정된 정체

성 전념을 정체성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지표로 삼아 물질주의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껏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 전념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둘째, 물질주의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 셋째, 여러 연구에서 내적 가치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안정감을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으로 꼽았다. 정체성 전념은 내적 가치판단 기준의 확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아는 한 아직까지 정체성 전념을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으로 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전념이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으로서 기능하는지, 나아가 물질주의가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불확실한 정체성(즉, 낮은 정체성 전념)이 물질주의를 거쳐 낮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체성 전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열망척도와 물질적 가치 척도)에 답변하였다. 연구 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 전념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둘째, 물질주의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셋째, 정체성 전념은 물질주의와 부적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넷째, 물질주의는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물질적 가치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의 경우, 가설을 세우기에 충분한 기존 연구가 없어 탐색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절차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의 인터넷 및 야외 게시판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총 150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었고(남자 57명, 여자 93명),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97세였다(표준편차 = 3.31). 참여자들은 캠퍼스 내에 있는 연구실에 방문하여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인 칸막이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여를 마친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본 연구는 정체성에 관련된 대규모 연구의 일부로 같은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의 일부가 다른 논문에 사용되었으나(Park, Moon, & Kim, 2019) 본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는 사용되지 않았다.

측정 도구

정체성 전념

Berzonsky 등(2013)이 개발한 정체성 전념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특정한 가치와 인생 목표,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확실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을 다닌 대학원생 두 명이 각각 번역과 역번역을 한 후, 영어권 국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를 포함하여 세 명이 회의를 통해 최종 번역본을 마련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와 “나는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양호하였다($\alpha = .90$).

심리적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이용해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문항 수에 따라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중 본 연구에서는 30문항 버전(Ryff et al., 2012)을 신뢰성 등(201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alpha = .93$). Ryff는 이 척도를 개발하며 좋은 삶을 단순히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심리학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특정한 기준에 의거해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총 여섯 개의 하위 척도를 제시하였다. 하위 요인 중 자율성은 사회적 압력에 동조하지 않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alpha = .74$; 예,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될 때에도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경통제력은 자신에게 알맞게 주변 환경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alpha = .77$; 예, “나는 대체로 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느낀다.”), 개인적 성장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등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alpha = .77$; 예,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개인으로서 많이 발전했다고 느낀다.”),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만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alpha = .79$; 예, “나는 다른 사람과 따뜻하고 신뢰가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다.”; 역채점 문항), 삶의 목적은 삶에서 얼마나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alpha = .81$; 예, “나는 내가 삶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역채점 문항), 그리고 자기 수용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alpha = .83$; 예, “일반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다.”)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개 하위 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표시하였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첫 번째로는 열망 척도(Kasser & Ryan, 1996) 중 물질적 성공 요인을 사용하였다. 열망 척도는 여섯 가지의 가치(물질적 성공, 매력적인 외모, 인기, 개인적 성장, 친밀한 관계, 공동체 헌신)를 측정하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서 제시된 목표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7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 매우 중요하다)로 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물질적 성공의 평균 점수($\alpha = .88$)에서 전체 문항의 총점을 빼 물질주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척도 역시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 앞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 번역되었다. 물질적 성공의 예시 문항으로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과 “비싼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번역 및 타당화한 물질적 가치 척도 중 9문항을 사용하였다(Richins, 2004; $\alpha = .87$).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성공판단; $\alpha = .83$),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소유중심; $\alpha = .73$),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

이다.”(행복추구; $\alpha = .75$)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변인들 간 단순상관

표 1에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 전념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졌는데($r = .63$),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와도 합치하는 결과이다(Vleioras & Bosma, 2005). 둘째, 두 가지 물질주의 척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57$), 두 가지 물질주의 척도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r_s \leq -.30$). 이러한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기존 연구와도 합치한다(Dittmar et al., 2014). 셋째, 정체성 전념이 높은 사람들은 가설 3에서 예상한 대로 두 가지 물질주의 척도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r_s \leq -.19$). 물질적 가치 척도의 세 가지 물질주의 하위 요인 중 성공판단과 행복추구는 물질주의 총점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소유중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변인	M (SD)	2	3	4	5	6	7
1. 정체성 전념	4.67 (1.07)	.63***	-.27***	-.19*	-.20*	-.06	-.20*
2. 심리적 안녕감	4.64 (0.83)	—	-.42***	-.30***	-.23**	-.06	-.37***
3. 물질주의 (열망 척도)	-0.31 (0.88)		—	.57***	.49***	.24**	.54***
4. 물질주의 (물질적 가치 척도)	4.56 (1.01)			—	.85***	.58***	.84***
5. 성공판단 (물질적 가치 척도 하위 요인)	4.09 (1.33)				—	.42***	.52***
6. 소유중심 (물질적 가치 척도 하위 요인)	4.43 (0.72)					—	.48***
7. 행복추구 (물질적 가치 척도 하위 요인)	4.91 (1.16)						—

* $p < .05$. ** $p < .01$. *** $p < .001$.

심은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연구 1의 네 번째 가설, 즉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정적 관계를 물질주의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3.1(Hayes, 2018)을 사용하여 편향 조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5000회)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을 이용해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전념을 예측변인, 심리적 안녕감을 준거변인, 물질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분석을 5회 실시한 결과(표 2), 열망 척도로 측정된 물질주의, 물질적 가치 척도의 총합으로 측정된 물질주의, 물질적 가치 척도의 하위 요인 중 행복추구의 간접효과가 유의했다.

물질적 가치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소유중심은 다른 두 하위 요인과는 다르게 정체성 전념과도 심리적 안녕감도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공판단과 행복추구 모두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실제로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한 것은 행복추구뿐이었다. 정체성이 확실하게 형성된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물질주의의 하위 요인 중 행복추구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결과는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이유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하여 자신은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요약하면, 예측했던 대로 정체성 전념과 물질주의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물질주의는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하지만, 연구 1은 설문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체성과 물질주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실험적 조작을 통해 정체성 확실성 정도가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실험적 조작을 통해 불확실한 정체성과 물질주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적거나(확실성 조건) 불확실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적은 후(불확실성 조건) 상태물질주의 척도에 답변하였다. 실험적 조작 이전에 기질적 물질주의 역시 측정

표 2.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정체성 전념의 직접효과와 물질주의의 간접효과

예측변인	매개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i>b</i> (<i>SE</i>)	<i>p</i>	<i>b</i>	[95% 신뢰구간]
정체성 전념	물질주의 (열망 척도)	0.43 (0.05)	< .001	0.06	[0.0203, 0.0997]
	물질주의 (물질적 가치 척도)	0.46 (0.05)	< .001	0.03	[0.0008, 0.0663]
	성공판단 (물질적 가치 하위 요인)	0.47 (0.05)	< .001	0.02	[-0.0083, 0.0502]
	소유중심 (물질적 가치 하위 요인)	0.49 (0.05)	< .001	0.01	[-0.0122, 0.0317]
	행복추구 (물질적 가치 하위 요인)	0.45 (0.05)	< .001	0.04	[0.0080, 0.0795]

주석. *b* = 비표준화 계수. *SE* = 표준오차.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간접효과는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함.

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조작을 통해 순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낀 참여자들이 확실하게 느낀 참여자들에 비해 상태물질주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2의 가설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절차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의 인터넷 및 야외 게시판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총 71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었고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14세였다(표준편차 = 3.24).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밝힌 참여자가 18명, 여성이라고 밝힌 참여자가 52명,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명이었다.

연구의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해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성격과 글쓰기>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안내를 하였다. 참여자는 개인별 칸막이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물질적 가치 척도(Richins, 2004)에 답변하였고 가짜 실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격 관련 척도에도 답변하였다. 척도들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참여자들은 복도에서 1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다. 이후 참여자들은 정체성에 대해 확실하게 느꼈던 경험이나 불확실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고 물질적 가치 척도를 변형해서 만든 상태물질주의 척도(Chang & Arkin, 2002)에 응답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연구의 진짜 목적에 대해 안내받고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받았다.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측정 도구

물질주의

참여자들의 기질적인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9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물질적 가치 척도를 사용하였다(Richins, 2004; $\alpha = .86$). 성공판단($\alpha = .84$), 소유중심($\alpha = .69$), 행복추구($\alpha = .72$) 등의 하위 요인들 역시 탐색적 분석을 위해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표시하였다.

상태물질주의

실험적 조작 후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hang과 Arkin(200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Chang과 Arkin은 물질적 가치 척도 문항에 “지금”과 같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평상시와 구분되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느낌을 측정하였다. 비슷한 방법을 Li 등(2018)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라는 문항은 “지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줄 것 같다.”로 수정하였고,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문항은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로 수정하였다. 분석에는 상태물질주의 총점($\alpha = .88$)과 더불어 성공판단($\alpha = .81$), 소유중심($\alpha = .71$), 행복추구($\alpha = .75$)가 사용되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실험적 조작

참여자들은 정체성 확실성 조건이나 불확실성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조작은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정체성이라는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Hogg, Sherman, Dierselhuis, Maitner, & Moffitt, 2007). 구체적으로 확실성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읽고 글을 작성하였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

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확실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던 순간(들),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깨닫거나,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나, 명확한 가치관으로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리거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결심했던 경험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와 관련이 있었으며 귀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최대한 자세하고 생생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은 밑줄 친 부분 대신 아래의 내용을 읽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순간(들),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 수 없거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거나, 명확한 가치관이 없어서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리기 힘들거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건별로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의 단어 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확실성 조건에서의 평균 단어 수는 158.11(표준편차 = 49.42)이고 불확실성 조건의 단어 수는 144.20(표준편차 = 51.6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독립표본 $t(69) = 1.16, p = .25$. 각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가 실제로 작성한 글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확실성 조건의 예시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막연하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을 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점차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평생 연구하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회적 약자들, 더 나아가 최빈국가와 그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식량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티비나 인터넷, 책 등에서 기아문제에 대해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내 삶은 그것으로 인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만족하는 것이상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을 때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나에게 있어서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불확실성 조건의 예시글

“최근에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여러 군데 신청해서 받으려다녔는데 간단한 심리 상담이나 학업코칭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의 관심사, 장래희망이나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을 물어보셨다. 그런데 나의 고민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진로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 알 수 없고 선택하는 것도 잘 못하겠어서 나는 정말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했다. 어떤 순간에 가장 기뻐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다. 지금도 학업코칭은 꾸준히 받고 있는데 오늘도 2전공은 뭐로 할지 졸업 후 대학원에 갈 것인지 취직을 한다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음표만 잔뜩 받고 대답은 못 했다.

나는 호불호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어느 한 가
지가 딱 좋다고 꼭 집어서 잘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 친구는 맨날 자기는 뭐는 좋고 뭐
는 싫다면서 싫은 건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더 나은 걸 고를 수 있다
는 게 부러웠다.”

결과는 참여자들의 기질적 물질주의 수준이 각
조건 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었음을 의미한다. 조
작 전에 측정된 기질적 물질주의와 조작 후에
측정된 상태물질주의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r
 $= .79, p < .001$. 하지만, 아래 제시된 바와 같
이 실험적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 역시
있었다.

결과 및 논의

예비 분석

정체성 확실성 조작에 따른 조건 간 물질주
의 점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실험적 조작을
독립변인으로, 조작 전에 측정된 기질적 물질주
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두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

상태물질주의에 대한 정체성 확실성 조작의 효과

실험적 조작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상태
물질주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상태물질주의 총점, 성공판단, 행복추구
등 세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구
체적으로, 확실한 정체성 경험에 대해 적었던
참여자들의 상태물질주의 점수가 불확실한 정체
성 경험에 대해 적었던 참여자들에 비해 낮았
다. 상태물질주의를 종속변인으로, 기질적 물질

표 3. 정체성 확실성 조작 조건에 따른 물질주의 점수 차이

구분	종속변인	평균 (표준편차)		$F(1, 69)$	p
		확실성 조건 ($n = 36$)	불확실성 조건 ($n = 35$)		
실험적 조작 전 기질적 물질주의	물질주의 전체	4.61 (1.11)	4.64 (0.92)	0.02	.891
	성공판단	4.74 (1.42)	4.74 (1.24)	0.00	.995
	소유중심	4.37 (1.22)	4.41 (1.07)	0.02	.886
	행복추구	4.71 (1.23)	4.77 (1.02)	0.05	.829
실험적 조작 후 상태물질주의	물질주의 전체	4.10 (1.06)	4.61 (1.03)	4.22	.044
	성공판단	4.06 (1.30)	4.67 (1.24)	4.12	.046
	소유중심	4.05 (1.33)	4.39 (1.26)	1.26	.266
	행복추구	4.19 (1.08)	4.76 (1.12)	4.87	.031
실험적 조작 후 상태물질주의 (기질적 물질주의 통제 후) ^a	물질주의 전체	4.11 (0.10)	4.59 (0.10)	10.92	.002
	성공판단	4.06 (0.12)	4.67 (0.12)	13.42	< .001
	소유중심	4.06 (0.12)	4.37 (0.12)	3.27	.075
	행복추구	4.21 (0.13)	4.74 (0.13)	8.63	.005

주석. ^a이 변인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아래 제시된 수치는 예측된 평균과 표준오차임.

주의를 공변인으로 설정한 공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총점, 성공판단, 행복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하지만, 공분산분석에서도 하위 요인 중 소유중심은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자가 작성한 글의 단어의 수를 통제 한 후에도 이러한 결과의 유의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확실성 조작 효과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조건별로 조작 이전과 이후 물질주의 점수를 반복 t 검정을 이용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확실성 조건에서는 물질주의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t = 3.75, p = .001$), 불확실성 조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07, p = .95$). 물론, 기질적 물질주의와 상태물질주의 간 문항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 조작을 통해 상태물질주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확실성 조작을 통해 상태물질주의가 감소했음을 가리킨다.

물질주의 하위 요인의 경우, 성공판단과 행복추구에서 조작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성을 느꼈던 참여자들은 불확실하게 느꼈던 참여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확실한 정체성이 가치판단에 대한 내적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적 기준, 특히 물질에 덜 의지함을 시사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불확실한 정체성이 높은 물질주의를 야기하여 낮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한 연구 1의 결과, 불확실한 정체성은 높은 물질주의 및 낮은 심리적 안

녕감과 관련되어 있었고, 물질주의는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정체성의 확실성 정도를 실험적으로 조작한 후 상태물질주의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순간적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체성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물질주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의 확실성 정도가 물질주의 수준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김가영 등, 2016; 김경미, 2014; 신희성 등, 2017; Dittmar et al., 2014; Kasser & Ryan, 1993, 1996). 한국인들이 미국, 인도, 일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물질주의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Cho et al., 2016; Diener et al., 2010; Flynn et al., 2013), 높은 물질주의는 왜 한국인들이 높은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리 행복하지 않은지 설명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어떤 사람들의 물질주의가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불확실한 정체성이 높은 물질주의의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탐색적으로 이루어진 물질주의 하위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행복추구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추구는 정체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했고 정체성 조작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짐을 가리킨다. 정체성 확실성 조건에 있던 참여자들의 경우 성공판단 점수가 낮아진 결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자신 안에 마련하고 있어 물질과 같은 외부적 기준에 덜 의지함을 시사한다. 소유중심의 경우 특별히 의미 있는 결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물질적 가치 척도의 하위 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 앞서 소개했던 Chang과 Arkin(2002)의 연구에서도 무규범 상태와 자기의식은 하위 요인 중 성공판단과 행복추구와만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유언재와 이성준(2015)의 연구에서도 이 두 하위 요인만이 삶의 만족 및 행복과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김가영 등(2016)의 연구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친구와 1억 원 중에서 돈을 선택하였는데, 이 둘 간의 관계도 성공판단과 행복추구를 통해서만 매개가 되었다. 이렇게 소유중심과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성공판단과 행복추구는 모두 살면서 중요한 성공이나 행복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외적인 기준인 물질에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반면, 소유중심은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는 문항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 물질의 소유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측정할 뿐 가치판단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물질적 가치 척도의 개발자인 Richins 스스로 세 하위 척도가 같은 수준에 있다기보다는 성공판단과 행복추구가 물질주의의 두 측면이고 소유중심은 이 둘로부터 야기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Richins & Chaplin, 2015) 향후 세 하위 요인의 관련성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비록 가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체성 조작이 물질주의에 끼친 영향의 방향성이다. 참여자들은 조작을 통해 순간적으로 정체성이 확실하다고 느끼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낀 후 상태물질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상태물질주의 점수를 조작 이전에 측정된 기질적 물질주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 정체성 확실성 조건의 참여자들의 상태물질주의 점수는 하락하였

으나 불확실성 조건의 참여자들의 점수는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의 평상시 정체성이 비교적 불확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체성 상태 인터뷰(Marcia, 1966)를 통해 정체성 발달 상태를 구분했던 기존 연구들은 이런 가능성을 지지한다. 한국의 20대를 상대로 했던 연구에서 정체성 획득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7%였는데(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7), 이 결과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인터뷰를 통해 정체성 획득으로 분류된 참여자들은 24세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56%(Meilman, 1979), 24세에서 27세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27%(Whitbourne & Tesch, 1985), 21세와 22세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41%(Prager, 1986)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연구가 이뤄진 시기도 다르고 참여자들의 나이도 다른 만큼 한국인들의 정체성 발달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나이의 참여자를 여러 국가로부터 모집해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지 살펴본 기존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5). 구재선과 서은국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은 미국 대학생에 비해 물질을 포함한 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높은 사회비교와 낮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낮은 안녕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구재선과 서은국의 연구에서는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에 비해 외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 원인 중 하나가 불확실한 정체성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향후 두 연구를 확장 및 보완하여 불확실한 정체성, 외적 가치 추구, 사회비교, 사회적 지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개인의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계수가 .6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관련성이 두 척도의 문항이 겹치기

때문인지 확인한 결과 직접적으로 겹치는 문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정체성 전념의 한 문항(“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삶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만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실제로 정체성 전념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 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자율성 .39, 환경통제적 .50, 개인적 성장 .50, 대인관계 .31, 삶의 목적 .69, 자기수용 .49로 나타나 삶의 목적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체성 전념과 개념적으로 겹치지 않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했던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 중 불안전감파 관련된 요인들이 정체성과 개념적으로 맞아 있음을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하였을 뿐 경험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에 밝혀졌던 여러 선행 요인과 정체성을 함께 측정해 정체성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후에도 물질주의를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체성 발달과정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확실하게 형성된 정체성이 물질주의 및 심리적 안녕감과 갖는 관계를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 전념만 측정하고 정체성 탐색에 관련된 변인은 측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념뿐 아니라 탐색에 관련된 변인도 포함하여 정체성 탐색이 물질주의 및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체성 탐색과 전념을 단일 유형으로 보지 않고 여러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Crocetti et al., 2008; Luyckx et al., 2006, 2008),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측면이 물질주의 및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험적 방법을 통해 불확

실한 정체성이 물질주의를 야기할 수 있음을, 나아가 물질주의가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물질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기는 하였지만 불확실한 정체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직접효과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었다. 그에 따라 향후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간접경로들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은 좋은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정체성 확실성 정도가 물질주의에 인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 결과가 반대 방향의 인과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높은 물질주의가 불확실한 정체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질과 같은 외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잃으면서 불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물질주의와 외로움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두 변인은 서로가 서로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타났다(Pieters, 2013). 정체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 역시 종단연구를 통해 정체성과 물질주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어떤 기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지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박선웅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으로 학사, 테이턴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석사, 노스이스턴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주제로는 정체성, 물질주의, 성장동기 등이 있다.

박예린은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현재 터프츠대학교 아동학 및 인간발달학 석박통합과정에 있다. 주요 연구주

제는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3, 1, 7). 고교생 44% “10억 주면 감옥 1년 간다.”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doi: 10.21193/kjspp.2015.29.4.004
- 김가영, 임낭연, 서은국 (2016). 외로움과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 행복추구 수단으로서의 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1-21. doi: 10.21193/kjspp.2016.30.1.001
- 김경미 (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295-314.
- 김유연, 박성연 (2001).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13. doi: 10.6115/khea.2011.49.6.109
- 김지선, 설경옥 (2018).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이상적 배우자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4), 1-23. doi: 10.21193/kjspp.2018.32.4.001
-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낮은 일반적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23-36. doi: 10.21193/kjspp.2012.26.1.002
-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7).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 2007-1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2017).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보건사회연구*, 37(3), 368-397. doi: 10.15709/hsr.2017.37.3.368
- 유연재, 이성준 (2015). 마음챙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물질주의와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91-110. doi: 10.17315/kjhp.2015.20.1.006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doi: 10.20406/kjcs.2018.8.24.3.385
- Balistreri, E., Busch-Rossnagel, N. A., & Geisinger, K. F. (199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18(2), 179-192. doi: 10.1006/jado.1995.1012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Belk, R. W. (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91-297.
- Berzonsky, M. D. (2003). Identity style and well-being: Does commitment matter?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2), 131-142. doi: 10.1207/s1532706xido30203
- Berzonsky, M. D., Soenens, B., Luyckx, K., Smits, I., Papini, D. R., & Goossens, L.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vised Identity Style Inventory (ISI-5):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893-904. doi: 10.1037/a0032642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5), 389-406. doi: 10.1002/mar.10016
- Chaplin, L. N., & John, D. R. (2007). Growing up in a material world: Age differences in material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4), 480-493. doi: 10.1086/518546
- Cho, H. J., Jin, B., & Watchravesringkan, K. T.

- (201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aterialism in emerging and newly developed Asian marke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6(1), 1-10.
- Christopher, A. N., & Schlenker, B. R. (2004). Materialism and affect: The role of self-presentational concer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260-272. doi: 10.1521/jscp.23.2.260.31022
- Cohen, P., & Cohen, J. (1996). *Life valu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New York: Psychology Press.
- Crocetti, E., Rubini, M., & Meeus, W. (2008). Capturing the dynamics of identity formation in various ethnic group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31(2), 207-222. doi: 10.1016/j.adolescence.2007.09.002
- de Rezende Pinto, M., Mota, A. O., Leite, R. S., & Alves, R. C. (2017). Investigating the influencers of materialism in adolescence. *Tourism & Management Studies*, 13(1), 66-74. doi: 10.18089/tms.2017.13109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oi: 10.1207/S15327965PLI1104_01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201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3.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doi: 10.1037/a0037409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lynn, L. R., Goldsmith, R. E., & Kim, W. M. (2013). A cross-cultural study of materialism and brand engagemen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5(3), 49-69.
- Ger, G., & Belk, R. W. (1996).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1), 55-77. doi: 10.1016/0167-4870(95)00035-6
-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00-816. doi: 10.1037/0022-3514.89.5.800
- Han, G., Kim, J., & Park, S. W. (2018).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decreased sustainability of shared resources: The moderating role of situational characteristics. *Sustainability*, 10, 2199. doi: 10.3390/su10072199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gg, M. A., Sherman, D. K., Dierselhuis, J., Maitner, A. T., & Moffitt, G. (2007). Uncertainty, entitativity, and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135-142. doi: 10.1016/j.jesp.2005.12.008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doi: 10.1146/annurev-psych-122414-033344
- Kasser, T., & Ahuvia, 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1), 137-146. doi: 10.1002/ejsp.85
- Kasser, T., Cohn, S., Kanner, A. D., & Ryan, R. M. (2007). Some costs of American corporate

- capitalism: A psychological exploration of value and goal conflicts. *Psychological Inquiry*, 18(1), 1-22. doi: 10.1080/10478400701386579
- Kasser, T., & Kasser, V. G. (2001). The dreams of people high and low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6), 693-719. doi: 10.1016/s0167-4870(01)00055-1
-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E. L., Niemiec, C. P., Ryan, R. M.,...Hawks, S.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1-22. doi: 10.1007/s11031-013-9371-4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doi: 10.1037/0022-3514.65.2.410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doi: 10.1177/0146167296223006
-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1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10.1037/10658-002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07-914. doi: 10.1037//0012-1649.31.6.907
- Levine, C. (2003). Introduction: Structure, development, and identity formation.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3), 191-195. doi: 10.1207/s1532706xid0303_01
- Li, J., Lu, M., Xia, T., & Guo, Y. (2018). Materialism as compensation for self-esteem among lower-class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1, 191-196. doi: 10.1016/j.paid.2018.04.038
-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6). Unpacking commitment and exploration: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of late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3), 361-378. doi: 10.1016/j.adolescence.2005.03.008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doi: 10.1016/j.jrp.2007.04.004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doi: 10.1037/h0023281
- McClosky, H., & Schaar, J. H. (1965). Psychological dimensions of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1), 14-40. doi: 10.2307/2091771
- Meeus, W., Iedema, J., Helsen, M., & Vollebergh, W. (1999). Patterns of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Review of literature and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9(4), 419-461. doi: 10.1006/drev.1999.0483
- Meilman, P. W. (1979). Cross-sectional age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30-231. doi: 10.1037/0012-1649.15.2.230
- Noguti, V., & Bokeyar, A. L. (2014). Who am I?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uncertainty and mater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 49(5), 323-333. doi: 10.1002/ijop.12031
- Oleson, K. C., Poehlmann, K. M., Yost, J. H., Lynch, M. E., & Arkin, R. M. (2000). Subjective overachievement: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doubt and concern wi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68*(3), 491-524. doi: 10.1111/1467-6494.00104
- Park, S. W., Moon, H., & Kim, S. (2019).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Pieters, R. (2013). Bidirectional dynamics of materialism and loneliness: Not just a vicious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4), 615-631. doi: 10.1086/671564
- Prager, K. J. (1986). Identity development, age, and college experience in wom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7*(1), 31-36. doi: 10.1080/00221325.1986.9914477
- Richins, M. L. (1995). Social comparison, advertising, and consumer discont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8*(4), 593-607. doi: 10.1177/0002764295038004009
- Richins, M. L. (2004). The material values scale: Measurement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209-219. doi: 10.1086/383436
- Richins, M. L., & Chaplin, L. N. (2015). Material parenting: How the use of goods in parenting fosters materialism in the next gener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6), 1333-1357. doi: 10.1086/680087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doi: 10.1086/209304
- Rindfleisch, A., Burroughs, J. E., & Denton, F. (1997). Family structure, materialism, and compulsiv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3*(4), 312-325. doi: 10.1086/209486
- Rindfleisch, A., Burroughs, J. E., & Wong, N. (2009). The safety of objects: Materialism, existential insecurity, and brand conne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1), 1-16. doi: 10.1086/595718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yan, L., & Dziurawiec, S. (2001).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2), 185-197. doi: 10.1023/A:1011002123169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doi: 10.1037/0022-3514.57.6.1069
- Ryff, C., Almeida, D. M., Ayanian, J., Deborah, S. C., Cleary, D. P., Coe, C...Williams, D. (2012). National Survey of Midlif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MIDUS II), 2004-2006. <http://doi.org/10.3886/ICPSR04652.v6>. 에서 2016.8.26. 인출.
-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1. doi: 10.9707/2307-0919.1116
- Vleioras, G., & Bosma, H. A. (2005). Are identity styles important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8*(3), 397-409. doi: 10.1016/j.adolescence.2004.09.001
- Waterman, A. S. (1984). Identity formation: Discovery or creation?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4), 329-341. doi: 10.1177/0272431684044004
- Watson, D. C. (2014). Materialism: Profiles of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197-200. doi: 10.1016/j.paid.2013.09.014

- Watson, D. C. (2015). Material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facet-level analysi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7(1), 133-150.
- Weaver, S. T., Moschis, G. P., & Davis, T. (2011). Antecedents of materialism and compulsive buying: A life course study in Australia.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19(4), 247-256. doi: 10.1016/j.ausmj.2011.04.007
- Whitbourne, S. K., & Tesch, S. A. (1985). A comparison of identity and intimacy statuses in college students and alumni.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39-1044. doi: 10.1037/0012-1649.21.6.1039

1 차원고접수 : 2019. 02. 26.

수정원고접수 : 2019. 05. 08.

최종게재결정 : 2019. 05. 18.

Materialism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Identity Uncertainty and Low Psychological Well-Being

Sun W. Park

Korea University

Yerin Park

Tuft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uncertain identity increases materialism, which in turn decreases psychological well-being.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test this idea. In Study 1,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identity commit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terialism. It was found that identity certainty as assessed by identity commitment was negatively related to materialism and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at materialism mediated the link between identity certain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tudy 2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uncertain identity causes materialism using an experiment. Identity (un)certainly was manipulated by asking participants to write a story in which they experienced a strong sense of who they were (certainty condition) or a story in which they experienced the lack of identity (uncertainty condition). Right after the writing task, participants completed a measure of state materialism. Participants in the certainty condition showed a lower level of state materialism relative to those in the uncertainty condition, indicating the causal role of identity in materialism. Given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mental health, notoriously high materialism in Korea is a big social problem. The present study's contribution is to identify identity uncertainty as one of the antecedents of materialism.

Keywords: identity, materialism, mental health, psychological well-being